

# 첫눈 대설 두 모습... '술술' 뚫린 도로, '눈눈' 기는 인도

광주시·구청 밤새 제설작업  
연화칼슘 살포 등 소통 원활  
시민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어  
노인 많은 주택가는 안치워  
골목 곳곳 빙판길 '불안'



밤사이 눈이 쌓인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로 오르막길을 17일 오전 80대 할아버지가 난간을 잡으면서 힘겹게 오르고 있다. (왼쪽) 17일 오전 11시 구청 제설차량이 광주시 남구 봉산2동 용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소금과 연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오른쪽)



17일 오후, 눈은 그쳤지만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로 광주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는 곳곳이 얼어붙었다. 전날부터 내린 눈과 강풍으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퉀 도로 제설 작업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 5개 자치구 직원들은 전날 밤부터 제설작업에 비지땀을 흘렸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제설 작업에 들어갔다. 밤 11시까지 1차 제설 작업을 끝내고 새벽 4시까지 휴식을 한 뒤, 출근시간인 오전 8시까지 나뉜 교량구간·무등산 전망대·남문로 일부 구간 등 5개 노선 23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제설작업자들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소금 3t과 연화칼슘을 불에 희석시킨 염수 3000 l를 차량에 싣고 상습 결빙 구간에서 살포하면서 순환했다.

서구도 주요 도로와 교량 등 상습 결빙지역을 돌며 친환경 제설제 51t을 뿌렸고, 광산구도 연화칼슘 28 t과 소금 63 t을 주요 도로에 뿌리며 불편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썼다. 북구도 출근시간대에 맞춰 새벽 4시

부터 오전 11시까지 북부순환로와 망월동, 무등산장 일대를 제설작업하면서 총 69개 노선 125km의 도로의 눈을 치웠다.

하지만 자치단체 제설 작업이 주요 도로 위주라면 이뤄지고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배제되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광주시 동구 지산동·서구 양동·남구 서동 주택가에서 출근길에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걷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광주시 서구 양 3동에서 만난 김병희(78) 할아버지는 "양 3동은 계단도 많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많은데 눈 치우는 사람이 없어 위험하다"며 "방금 골목길을 지날 때는 지붕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제설 사각지대'인 서구 발산마을과 남구 서동 주택가 등도 얼어붙으면서 경사진 골목길 등에서 주변 난간이나 건물을 부여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끄러운

길 위에서는 "엄마야!", "으악!"하며 휘청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앞 눈도 안 치운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광주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과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시민의식'에만 기댄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인도와 골목길에 쌓인 눈은 일명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거주자)가 제설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별칙 규정 없는 권고 형식의 조례여서 주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축물의 대지에 잡힌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은 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눈이 내릴 경우 주간 기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해

야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럼에도 지자체는 제설 능력을 이유로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시민들에게만 떠넘기면서 비판이 나온다. 노인들이 많은 주택가의 경우 제설 작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치구의 제설·제빙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서구 관계자는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제설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골목길에 쌓인 눈을 다 치우기엔 인력이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김현영·김민석 기자 young@

## 윤석열 총장 20일 광주검찰청 방문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21일 검사장 회의 앞두고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일 광주를 찾아 일선 검사들과 만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의 하루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과 고검을 잇따라 방문, 검찰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 자·고검 방문 당시,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박했다

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광주 검찰청 방문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당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광주지검과 고검은 총장 방문 사실 외에는 일정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 차장실, 인권감독관실, 광주 고검 차장실, 총무과 등 관련 부서 어디에서도 세부 행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정부와전정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결빙 터널 다중추돌... 3명 사망·38명 부상

17일 낮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사매 2터널 앞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은 당시 많은 눈이 내린 터널 안을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면서 시작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남원시 사매 2터널에서 차량 30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쳐 남원의료원 등 8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총 길이 712m인 사매2터널 입구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이다. 질산 1만 8000 l를 싣고 터널에 진입한 24t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접촉을 일삼은 남구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직1월의 징계 처분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분이며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인권옹호프랜은 간부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도로 양쪽 방향을 모두 막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차례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 인근 공무원과 목격자들은 "대설특보로 많은 눈이 내려 폭설 영향으로 터널 안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탱크로리가 전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탱크로리 운전자가 이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 핸들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연합뉴스

## 전공노 남구지부, 갑질 간부공무원 경징계 반발

전공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17일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갑질행위를 일삼은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시 인사위는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

인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분리조치와 강력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인사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정직1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남구의 한 간부공무원은 여직원의 보건의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 임시의 직원 회식 참여 강요, 업무 외 지시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된 바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돈문제 말다툼 친구끼리 주먹다짐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친구 2명이 결국 주먹다짐까지 벌여 폭행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 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2)씨 지난 15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주점 앞에서 친구 B(50)씨가 "빨리 돈을 갚아라"며 상황을 독촉하자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친구 B씨도 이에 지지않고 양손으로 A씨의 목살을 잡아 바다에 내팽개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두 남성이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지 번진 것 같다"며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